

영어는 발음이다! (2)

글 박정원(60일 완성 박코치 실전 영발음) 저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들리는 대로 발음하라

발음 훈련을 할 때 가장 흔한 훈련은 리딩(reading), 즉 읽기다. 리딩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원어민이 발음하는 소리를 그대로 흉내 내며 읽는 사운드 리딩(sound reading, 들리는 대로 읽기)과 대본에 적힌 단어들 모두 발음하며 읽는 스크립트 리딩(script reading, 보이는 대로 읽기)이 바로 그것이다.

일단 소리만으로 의미 파악이 되지 않으면 자막을 보고 의미를 파악하며 스크립트 리딩을 한다. 일단은 들리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치중한다. 대본에 적힌 단어들 모두 발음하며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탈락되거나 뭉쳐 있는 단어들도 하나하나 모두 발음한다. 그러나 의미 파악이 된 후에는 사운드 리딩을 하며 최대한 원어민의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내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면, "What is your name?"을 보이는 대로 읽으면 '왓 이즈 유어 네임?'이 된다. 그러나 들리는 대로 읽으면 '와취넴?' 정도가 된다. 보이는 대로 읽어서 문장의 구조(어순)를 파악했다면 이후에는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귀로 소리를 듣고 따라하는 사운드 리딩만 해야 한다.



자음과 모음 훈련법

■ 자음 훈련 5가지

영어의 자음은 5개 발성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영어가 나오는 소리의 특징으로 구분한 것이다. 코를 울리며 나오는 소리, 배에 힘을 쥐야 나오는 소리, 머리를 울려서 나오는 소리, 가슴을 울리고 나오는 소리, 단순히 목에서 나오는 소리로 구분해 연습을 하면 영어 발음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무성음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은 몸의 특정 부위에 손을 얹고, 힘을 주며 소리를 내는 각각의 발성법을 살펴 훈련한다.

비성(코감기 발성) → [n] [m] [ŋ]

‘음~’ 했을 때 코를 통해서 나는 소리다. ‘음, 음’ 하며 코끝이 울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기압을 넣는다. 코를 막고 똑같이 소리를 내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

복성(물개 발성) → [r]

‘억!’ 하고 토해 내듯이 내는 소리다. 단순히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음식물을 토해 내듯이 아랫배에 힘을 끌어올려서 내는 소리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위로 올리듯이 기압을 넣는다.

두성(고음 발성) → [i] [b] [v] [w]

코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소리를 낸다. 성악가들이 고음을 낼 때처럼 머리에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손을 머리에 얹고 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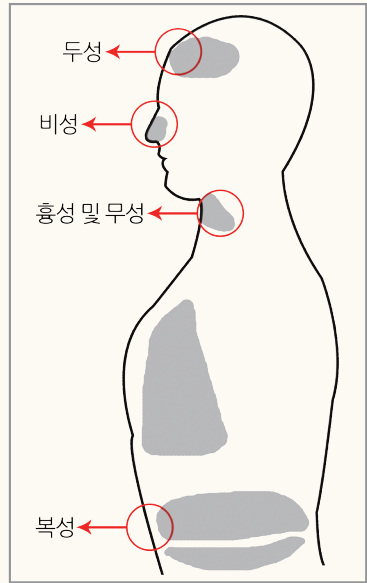
흉성(저음 발성) → [g]

목젖 쪽에서 발음된다. 목젖 부근에서 살짝 ‘으’라는 소리를 내며 호흡을 멈춘다. 멈춘 호흡을 ‘그’하는 소리와 함께 성대를 울리며 힘 있게 내보낸다. ‘으’라는 소리와 함께 목젖 부근에서 숨을 참았다가 소리를 힘 있게 내보내면 쉽다.

무성 → [p] [f] [t] [k] [s] [ʃ] [ʒ] [tʃ] [h]

목청(성대)을 울리지 않고 내는 소리를 무성음이라고 한다. 무성음은 보통 성대를 울리지 않고 입술, 혀끝, 혀의 안쪽과 연구개(입천장 뒤쪽에 있는 부드럽고 연한 부분)만을 사용해 내는 소리다.

※ 비성, 복성, 무성을 제외한 모든 자음과 모음은 모두 유성이다. 별도의 연습이 없어도 이미 다 발음하고 있는 소리들이다.



■ 모음 훈련 2가지

영어의 모음은 긴장과 이완 2개의 발성으로 이루어진다. 힘을 주는 긴장 모음과 힘을 빼는 이완 모음이다. 긴장 모음은 최대한 입을 크게 벌려 소리를 내는 것, 반대로 이완 모음은 특별히 입에 힘을 주지 않아도 소리가 나는 것으로 구분하면 쉽다. 모음을 발음할 때 2가지 모음을 구분할 수 있으면, 듣는 것 역시 가능하다.

긴장 모음 → [i:] [æ] [ou] [a] [u:]

긴장된 형태로 모음을 발음하기 위해 얼굴의 근육을 많이 사용한다.

이완 모음 → [ɪ] [e] [ɔ] [ʊ]

발음이 짧고 얼굴 근육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 혀의 뒷부분과 성대를 움직이면 안 된다.

① [i:] vs [ɪ]

[i:]는 '이', [ɪ]는 '에'에 가까운 소리다. ex) beat[bi:t] vs bit[bit]

② [æ] vs [e]

[æ]는 [e]에서 시작하고 [e]는 [ɪ]보다 입을 더 벌려 소리 낸다. ex) bad[bæd] vs bed[bed]

③ [ou] vs [ɔ]

[ou]는 '오우', [ɔ]는 '오'로 소리 난다. ex) coal[kou] vs call[kɔ:]

④ [a]

가장 크게 입을 벌려서 내는 소리다. 입을 크게 벌리고 '아'로 발음한다. ex) hot[hat]

⑤ [u:] vs [ʊ]

[u:]는 '우'로 소리 내지만, [ʊ]는 '으'에 가까운 소리다. ex) fool[fu:] vs full[ful]

PT와 CT 훈련법 익히기

■ PT는 Pronunciation Training, 즉 음소 단위 발음 훈련이다. 정확한 발음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으로, 좋은 발음을 갖기 위한 기초 훈련이다. 단어가 가지고 있는 발음 기호 하나하나를 끊어서 발음하는 것으로 발성의 위치를 확인하며 진행한다. 혀 위치, 입 모양, 발성법에 주의한다. 비성은 코에, 복성은 배에, 두성은 머리에, 흉성은 목(가볍게 조르기)에, 무성은 목에 가볍게 손을 갖다 대며 발성 위치를 확인하면 더 효과적이다. 보통 하루에 두세 단어를 골라서 최소 10분 이상 반복 훈련한다.

ex) 'free'를 활용한 PT

- ① 아랫입술을 윗니에 살짝 갖다 대며 무성음 [f]를 발음한다.
- ② 손을 아랫배에 올리고 복성을 활용한 [r] 사운드를 발음한다.
- ③ 마지막으로 입을 양쪽으로 벌리면서 [i:] 모음을 발음한다.
- ④ 1~3번을 3번 정도 반복한 후에 [fri:]를 발음한다.

■ CT는 Chunk Training, 즉 덩어리 발음 훈련이다. 영어는 몇 개의 단어가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서 발음된다. 먼저 영어식 발성과 호흡을 훈련한 후 CT를 훈련하면 영어 특유의 덩어리 현상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다.

기합 익히기

영어는 보통은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하게 되는데, 이때 강세를 넣어 줘야 '영어처럼' 들린다. 한국어에는 강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식 강세를 넣기 위해 4개의 기합을 적용하는 기합 훈련을 한다.

앗 기합(두성 기합) 머리에 손을 가볍게 대 본다. 가슴에 숨을 담아 혀를 윗니 뒤에 붙인다. 입을 옆으로 활짝 벌리면서 '앗' 하고 짧고 순발력 있게 소리를 낸다. 소리가 머리를 울린다는 기분이 들어야 한다.

음 기합(비성 기합) 코에 손을 가볍게 대 본다. 입을 다물고 '음' 하고 짧고 순발력 있게 소리를 낸다. 소리가 코에서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얼 기합(복성 기합) 손을 아랫배에 대고 아랫배 깊숙이 숨을 담는다. 혀의 뿌리를 안쪽과 아래쪽으로 당기는데 혀는 절대 입천장에 닿아서는 안 된다. 아래턱을 내리며 입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며 소리를 낸다. 내장을 토해 내듯이 소리가 아랫배에서 올라 오도록 하면 쉽다.

그 기합(홍성 기합) 손을 목에 올리고 가볍게 조르며 가슴에 숨을 담는다. 안의 것을 끌어 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공기를 내뿜듯이 한다. 손으로 목을 살짝 잡고 강하게 내뿜는다. 멈춘 호흡을 '그' 하는 소리와 함께 힘 있게 내보낸다.

기합 훈련은 한국어와 영어의 발성과 억양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합을 연속적으로 교차해서 훈련하다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지만 영어의 덩어리 현상을 익히는 데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다.

"Why don't you do that?"이라는 문장을 보통 원어민들이 발음할 때 '와이 돈트 유 두뎃?'이라고 하지 않고 '와든유 두뎃?'이라는 두 개의 소리 덩어리로 발음한다. 이를 CT를 활용하여 훈련해 보면 일단 원어민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어디에 강세가 들어가는지 위치와 횟수를 파악한 후, 소리의 고저를 파악하고 강세의 위치와 횟수에 맞춰 기합만큼 강한 강세를 집어넣어 '와든유 두뎃?'이라고 읽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영어 공부는 끝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문법, 단어, 청취, 발음... 할 공부가 태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끝은 있다."고 강조한다. 영어란 무엇인가? 말일 뿐이다. 말의 목적은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이야기가 통하면 끝'이다. 발음 훈련도 말이 통하는 하나의 훈련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면 그 효과는 반감된다. 아이들이 'Let It Go'에 열광하듯,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GD**